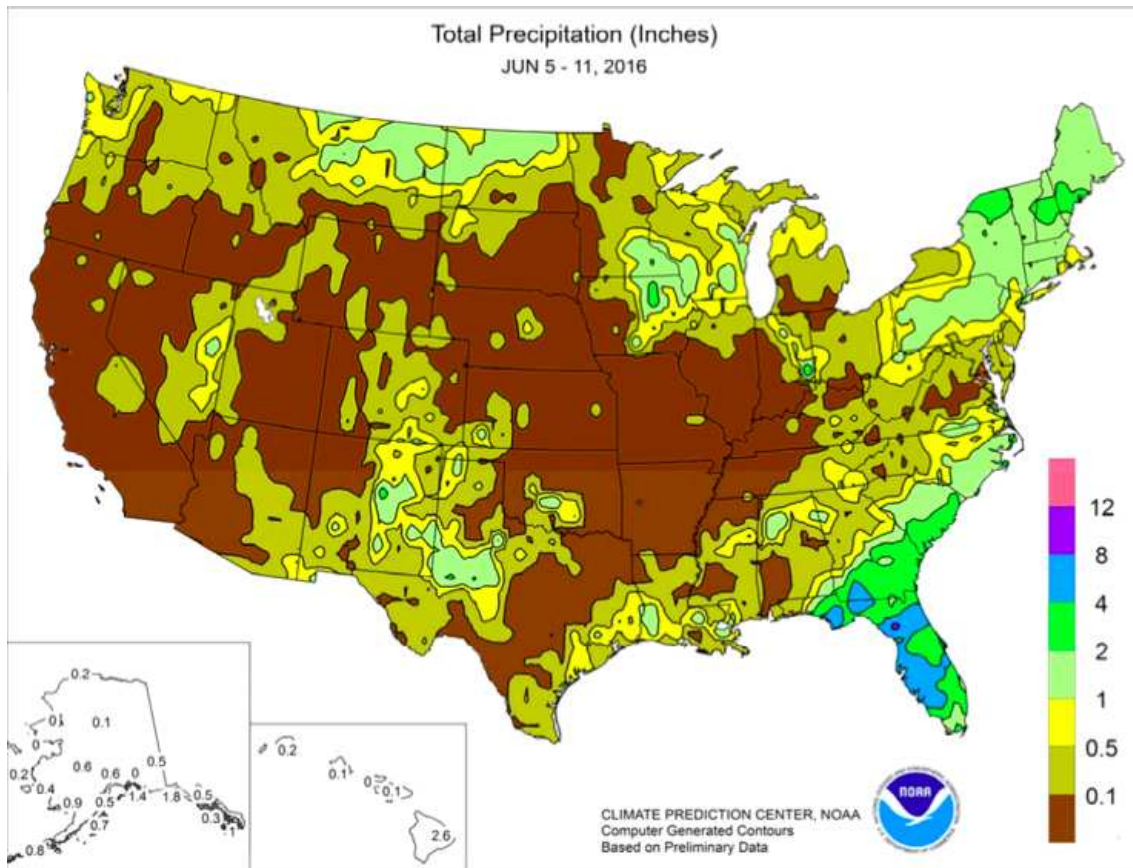


2016.6.7.

## 6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4)

### □ 미국 기후 현황(6/5~6/11)

열대성 폭풍 Colin이 6월 6~7일 밤사이 플로리다 북부로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 Colin은 일반적인 열대성 폭풍과 달리 플로리다 북동부 전역에 많은 비를 뿌렸다. 특히 서부-중부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지난주 초에만 1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북부 일부 지역과 로키산맥 남부 등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북동부 일대에도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이 일대의 가뭄이 해소되었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의 생육상황을 좋은 편이고, 파종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동부와 태평양 연안의 북서부 일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서부 일대에서도 최근 몇 주간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내륙산간 서부 및 북부 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고, South Dakota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주 후반 낮 최고기온이 100°F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를 보였다. 북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6/6~6/12)

전국적으로 대체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가운데, 로키산맥과 Missouri 일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았다. 북동부와 텍사스 중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낮았다. 중부 일대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서양 해안 지역의 몇 개 주에서는 열대성 태풍 Colin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7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 □ 세계 기후 현황(6/5~6/11)

■ 유럽: 중부와 북부에서는 지난주 이 일대를 범람하게 했던 많은 양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스칸디나비아와 북부 유라시아 대륙 일대에 여전히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지만, 비의 양은 확연히 줄었다. 독일 및 북부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고, 강우량은 30mm 내외였다.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농작업이 재개되었고, 겨울작물들도 날씨가 생기고 있다. 잉글랜드 남동부에서도 비가 조금 내렸는데, 강우량은 1~25mm 내외였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밀과 유채도 등숙기에 접어들었다.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높았고, 이 덕분에 증산작용이 활발해져 작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는 낮 기온이 32~40°C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겨울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북부 등에서는 10~75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 비로 대두와 옥수수, 해바라기 재배지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폴란드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등숙기에 접어든 작물들의 생육에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고, 남부 밀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유라시아 대륙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고기압의 경향으로 이동성 저기압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대로 내려와 3주 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북부 일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러시아 북부 Caucasus 지역에서는 20~8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재배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러시아의 주요 겨울밀 재배지역인 Rostov, Krasnodar Krai 등 남서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농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온은 평년에 비해 2~5°C 정도 낮아 작물의 생장이 다소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여름을 앞두고 고온에 의한 피해 우려도 낮아졌다.

■ 동아시아: 대부분의 여름작물 재배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북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10~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토양 수분은 대두와 옥수수 등의 재배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에 시작된 비의 누적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많은 편이다. 북부 평원의 남쪽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수확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달리 서부에서는 비가 내렸고, 작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부 전역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쯔강 일대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관찰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

2016.6.7.

■ 호주: 퀸즐랜드 남부 및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지난 주 후반 내린 비 이후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 토양수분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 덕분에 밀과 겨울작물들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남동부와 서호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겨울작물과 유채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지난 5월 초반에 내린 평년 수준보다 많은 양의 비로 현재 이들 지역의 생산전망은 밝은 편이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았고,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다.

■ 아르헨티나: 남부의 곡창지역에서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수확을 앞둔 작물들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Buenos Aires 남동부의 해안지역에서 10~25mm 내외의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부와 서부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북동부에서도 평년에 비해 기온이 5°C 이상 낮다. Santiago del Estero, Chaco 등 북부에서는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9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39%, 86%이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56%, 98%에 비해서는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서리가 내려 옥수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Rio Grande do Sul, Parana 남부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옥수수의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 밖의 북부지역에서는 남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6월 6일 기준 이모작 옥수수의 5%가 개화했고, 50%가 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있다. 남부의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동부, Parana 북부, Sao Paulo 남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보다 북부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Mato Grosso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만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서부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